**에코 페미니즘 연구**

2021년 3월 24일

양지윤 작성

**1. 연구배경**

동시대 미술 전시를 연구하고 기획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사유의 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식의 얼굴을 한 고정관념, 편견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질문하고, 새로운 사유와 공동체의 여백을 만드는 일이다.

코로나 시대, 분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현재 세계 어디에서나 생태적·사회적 붕괴가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태적·사회적 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에서 녹색당의 창립 멤버인 생태사회주의자 사랄 사르카르는 이렇게 말한다. “녹색당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서둘러 창립해서는 안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다. 우선은 기초작업, 즉 우리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사사로운 이익, 근거 없는 믿음과 희망적 관측과 상관없이 세계 전반의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성실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오직 그런 뒤에야 우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그 분석의 출발점을 에코페미니즘에서 찾는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전환을 요구한다. 기존 환경 운동과 여성 운동에 대한 반성이자 대안이기도 하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지금까지의 환경운동이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구호에 집착, 단속과 법제 등에 의존해 왔다고 비판하고 여성운동 역시 지나치게 남녀의 대결 구도 속에서 진행돼 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코로나를 현대 문명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그런 관점에서 자연에 재응답하려고 한다. 연구는 ‘자본-남성-테크놀로지’라는 기존의 문명 체계를 넘어서는, ‘자본 너머 - 여성성 – 적정 테크놀로지’라는 문명 체계를 상상하는 시도다.

**2. 문제의식**

요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갈 일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늘 하던대로 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대규모 기상변화를 일으키는 일상을 말하는 것인가? 막대한 투자와 자본 축적을 위해 자연을 무차별로 파괴하고 많은 생명을 대멸종으로 몰아넣는 일상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왔다고 한다. 지난 30년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새로운 질병은 300개 가까이 되는데,그중 상당수가 숲에서 왔다. 지금 야생종들의 질병이 인간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숲을 벌채하니 숲에 살던 동물들이 마을 가까이로 왔고, 그 벼룩이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염병이 된다. 에볼라, 키아사나 삼림병 등 많은 전염병들이 그러했다.

그런데 아마존 같은 숲이 잘려 나가는 이유가 바로 GMO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식품 소비구조가 몬산토 같은 유전자조작 산업, 거대 식품회사의 자본 축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중부에 있는 광활한 GMO콩 재배지도 생명의 무덤이 됐다. 나비가 사라지고 제왕나비가 죽고, 여타의 식물들도 죽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새로운 전염병을 몰고올 것이라는 예측했다. 추후 세계 대유행을 일으킬 바이러스 8가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악명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지카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속해 있었다. 연구팀의 예측이 맞았던 셈이다.

그리고 연구팀은 그 원인도 몇 가지 말했다.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또는 '기후변화'였다.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동물과 인간에게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나타나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예측에도 글로벌 자본주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개발할 기술적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시장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개발하지 않았다. 전염병 백신은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모두에게 판매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유였다.

**3. 연구방법**

독일의 에코 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가 개발한 사회 과학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미즈는 지금까지의 사회 과학 연구가 근대 과학의 전통에서 출발했기에 근거 없는 객관성에 의지한다고 비판한다. 사적 경험, 개인의 감정과 직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스피킹 아웃 그룹Speaking Out Group: 참여자 모두는 여성으로 구성된다. 가부장제에 대해 자신의 실재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연구 모임은 시작한다. 지금까지 지구적 위기와 페미니즘 문제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 왔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고민해 온 4인으로 시작한다. 또한 공개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에코페미니즘에 관해 고민해 온 연구원 4인을 추가 모집한다. 총 8인의 연구팀으로 구성된다.

②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연구해온 여성 학자 8인을 선정했다. 연구원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여성학자 1인을 정하고, 이에 관한 개별 연구를 진행한다. 그가 저술한 논문과 책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삶과 성장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인물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원은 리서치 내용 중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때 마다, 다른 연구원들과 지속적으로 이를 공유한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에 대해 모든 연구원은 각자의 코멘트를 남긴다.

③ 반영Reflect: 연구원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삶과 예술 실천에 이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4. 선정된 8인의 여성학자**

마리아 미즈Maria Mies

1931년 출생. 독일 쾰른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오랜 기간 인도에서 작업하였고, 1979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사회과학연구원'에 '여성과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60년대 말부터 여성운동과 여성연구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페미니스트, 환경과 세계 개발문제에 대해 여러 책과 논문들을 써 왔다. 주요한 관심은 방법론과 경제학에서 대안적 접근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1993년 가르치는 일에서 퇴임한 뒤부터, 여성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아탁(Attac)의 여성 네트워크인 '페미니스트아탁'의 회원이다. 저작으로 '인도여성과 가부장제'(Indian Women and Patriarchy, 1980), '에코페미니즘'(창비, 2000, 공저),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동연, 2013, 공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갈무리, 2014) 등이 있다.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1952년 출생. 환경, 여성인권, 식량주권 문제를 다루는 인도의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활동가이다. 핵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서구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운동에 투신했다. 인도에서 다국적기업의 삼림파괴에 반대하는 칩꼬운동을 조직했으며, 제3세계의 생물다양성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나브다냐운동을 실천했다. 1993년에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바른 삶상Right Livelihood Award을, 2008년에 시드니 평화상Sydney Peace Prize을 수상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생태학연구재단의 책임자로 있다. <녹색혁명의 폭력>,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물전쟁> 등을 썼다.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

1936년 출생.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자연자원대학(CNR)의 '자원제도, 정책, 관리 전공'(RIPM) 교수. 전세계에 생태여성론(Ecofeminism)의 논의를 촉발시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생태여성주의자로서, 환경철학/사상, 환경윤리, 과학사/환경사, 여성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학창 시절에는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고, 학부에서는 화학을, 대학원에서는 물리학과 과학사를 전공했으며, 60년대 이후 환경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서 환경과 여성, 과학 문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지구를 보호하기: 여성과 환경>(1995), <생태혁명: 뉴잉글랜드의 자연, 성, 과학>(1989), <자연의 죽음: 여성, 생태, 과학혁명>(1980)이 있다.

루시 리퍼드Lucy Lippard

1937년 미국 뉴욕 출생의 전시기획자, 미술평론가, 액티비스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현대미술, 페미니즘, 정치, 장소 등에 대한 다수의 글과 20권에 달하는 책을 집필했다. 1969년 정치적 예술가 그룹인 미술노동자연합Art Workers’ Coalition, AWC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1976년 여성의 예술 및 정치에 주목하는 작가들과 함께 헤러시스 콜렉티브(Heresies Collective)를 결성했고, 같은 해 뉴욕에서 예술 전문 출판 대안공간인 프린티드 매터Printed Matter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6년: 1966년부터 1972년 사이 미술 오브제의 비물질화>(1973), <중심에서: 여성의 미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글쓰기>(1976), <지역의 유혹: 다중심 사회의 장소감>(1997), <언더마인: 토지 이용, 정치, 미술을 통해 달려보는 변화하는 서부의 질주>(2014) 등이 있다. 현재 뉴멕시코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1944년 출생. 세계적인 생물학자, 페미니즘 이론가, 문화 비평가, 과학 및 테크놀로지 역사가다. 콜로라도 대학에서 동물학, 철학, 문학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의식사학과 명예교수다. 인류학, 환경학, 페미니즘, 영상·디지털미디어학 등과 연계하여 다학제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인문학과 기술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저서로 <영장류의 시각>,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한 장의 잎사귀처럼> 등이 있다.

실비아 페데리치Silvia Federici

1942년 출생. 여성주의 저술가이자 교사이며 투사이기도 하다. 1972년에는 <국제여성주의공동체>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펼쳤다.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나 셀마 제임스 같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의 다른 구성원들과, 마리아 미즈나 반다나 시바 같은 여성주의 저술가들과 함께 “재생산” 개념을 지역 및 전 세계라는 맥락에서 착취와 지배의 계급관계를 이해하는 열쇠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를 자율성과 공유재의 여러 형태들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동안 나이지리아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반세계화운동과 미국의 사형제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아프리카의 학생과 교사들이 아프리카 경제 및 교육시스템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원하는 조직인, <아프리카 학문의 자유위원회>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1987년부터 2005년까지는 뉴욕 헴스테드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국제학, 여성학, 정치철학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작으로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갈무리, 2013), <캘리번과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갈무리, 2011) 등이 있다.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

1931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바사컬리지(Vassar College)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52년 뉴욕콜럼비아대학교에서 영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63년 뉴욕대학교 인스티튜트 오브 파인 아츠(Institute of Fine Arts)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9년부터 페미니즘 미술사를 강의하기 시작하여 1971년 '왜 이제까지 위대한 여성 미술가가 없었는가?'를 발표하면서 미술사에서 페미니즘을 공식 선언했다. 바사 컬리지, 콜럼비아 대학, 윌리엄스 컬리지, 스탠포드 대학, 예일 대학, 뉴욕 시립대학 등에서 가르쳤고, 현재는 뉴욕대학교 인스티튜트 오브 파인 아츠에서 릴라 아체슨 왈래스Lila Acheson Wallace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책으로 <리얼리즘>(1971), <여성, 미술, 권력>(1989), <시각의 정치학>(1991), <세잔의 초상화>(1996), <미술 속의 여성>(1999), <자아와 역사>(2001) 등이 있다.

그리젤다 폴록Griselda Pollock

1949년 출생. 본래 반 고흐, 고갱, 드가, 카사트 등 19세기 근대 미술사의 주요 미술사가로 알려졌다. 1970년대에 T.J. 클라크와 함께 미술사의 사회적 시각을 확립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영미의 미술사, 미술비평에 프랑스 정신분석학 이론을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 미술사학의 선구자로서 시각예술과 페미니즘 문화의 관련성을 독자적인 관점으로 제시하는 비평가이자 이론가, 역사가로 명성을 얻고 있다. 현재 영국 리즈 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이며 동 대학 문화학 센터의 책임자다. 지은 책으로 <시각과 차이>(1988), <빈센트 반 고흐>1978), <메리 카사트>(1998), <페미니즘 미술사 1970-85>(1987), <정통에의 도전>(1999) 등이 있다.

**5. 사전 연구**

**6년, 예술 오브제의 탈물질화: 루시 리퍼드**

1990년대 후반 뉴욕에서 공부를 시작한 내게 루시 리퍼드는 신화와 같은 존재였다. 1970년대 리퍼드는 뉴욕에서 아티스트 북을 출판하는 서점이며 예술공간인 프린티드 매터Printed Matter의 창립 멤버, 페미니즘 정치 예술 집단인 헤러시스 콜럭티브Heresies Collective의 창립 멤버 등 예술적 실천과 현실 정치, 문자 언어와 시각 언어 사이에서 고유한 영역을 개척했다. 이후 뉴욕의 개념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의 실천에 앞장 섰던 그가 1990년대 초 홀연히 뉴욕을 떠났고, 이는 전설처럼 오래 회자되었다.

하지만 뉴욕 아트씬을 떠났다고 그녀의 예술적 실천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거주지인 뉴 멕시코 인구 250명 규모의 작은 마을에서 리퍼드는 현대 예술에 있어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실천했다. 대지미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미술, 서부 개발의 역사에서 기인한 토지를 바라보는 미국식 관점의 문제, 생태 관광의 정치적 위치들에 대한 흥미로운 글들을 썼으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예술의 정치적 실천을 계속한다. ‘왜 떠났는가’에 대한 대답은 90년대까지 리퍼드의 활동들과 뉴욕 아트씬의 변화에 있을 것이다.

1937년 뉴욕 태생의 리퍼드는 미술사를 전공한 후, 1958년 뉴욕 모마의 도서관에서 1년반 동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규직 근무를 했다. 이곳에서 그는 큐레이터가 요청한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모마에서 야간조로 근무했던 솔 르윗을 만났고, 로버트 라이먼, 댄 플래빈과 같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시작한다. 뉴욕 다운타운의 바워리 가에서 솔 르윗, 실비아 만골드, 에바 헤세를 중심으로 한 예술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예술의 비물질성에 천착하여 문자언어와 시각언어를 연결짓는 개념미술을 만든다. 언어적 전략을 통해 예술을 정치적으로 만든다는 개념미술은 리퍼드의 예술적 실천의 기반이 된다.

이후 1964년은 리퍼드에게 중요한 해가 되었다. 첫 전시를 기획했고, 첫 강의를 열었고, 두 권의 책을 처음 출판했고, 여행을 시작했다. 또한 인생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던 세스 시겔롭을 만난다. 시겔롭은 로렌스 위너, 로버트 베리, 조셉 코수스와 함께 ‘아트 딜러’의 역할을 재발명했다.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루피 리퍼드가 1973년 출판한 <6년: 예술 오브제의 탈물질화Six Years: Dematerialization for the Art Object>에 고스란히 담긴다. 제 관점이 여성주의적이며 좌파적임을 서두에 밝히며, 1966년부터 1972년까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출판된 책, 기획된 전시, 아티스트 인터뷰, 심포지움, 글 조각들을 선별한 출판물이다.

사실 이 출판물은 '책'이라기 보다는 '전시'에 가깝다. 솔 르윗이 1969년 쓴 “개념 미술가들은 이성주의자라기 보다는 신비주의자다. 이는 논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고, 비논리적 정의는 새로운 경험을 생성한다”로 시작하는 이 출판물/전시의 주제는 개념 미술이 갖는 미적/정치적 경계들이다. 이를 위해 미니멀 아트, 비-정형 예술, 대지 미술, 과정 미술에 대한 선별된 작업들과 텍스트들이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리퍼드는 이런 예술적 실천들이 정치적 실천이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말한다. 개념 미술의 시대는 베트남 전쟁과 시민 운동, 여성 해방 운동과 대안 운동의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출판물의 형식과 구성은 지금까지도 주를 이루는 ‘남성적’이라고 분류되는 형식주의적 미술 비평과 상반된다. ‘저자’의 위치가 아닌, ‘편집자’의 위치에서 리퍼드는 미술사를 쓰는 새로운 방식을 발명한다. 이는 ‘여성적’ 글쓰기의 새로운 대안이 된다. “이론은 학문적으로 이상화된 개념들이 아닌, 실재 경험으로부터 발전된다”라고 리퍼드는 말한다. 이 출판물은 객관주의적 비평이라는 환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미술 비평에 대한 비평이다.

이 책이 출판된 지 3년 후부터 개념 미술은 화랑에서 미술품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한다. 1970년대까지 유럽 미술계에 비해 지역적이었던 뉴욕 아트씬은, 1980년대 자본의 막강한 유입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기 시작한다. 1~2년 사이에 백여개의 신흥 화랑들이 소호에 생겨났고, 뉴욕 아트씬는 전례 없는 상업적 호황을 맞는다.

나는 2013년 뉴욕 뉴스쿨에서 리퍼드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20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온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객들이 대강당을 메웠다. 강연의 제목은 <변화하기: 미술 ‘비평가’가 되지 않는 것에 관하여>이었다. ‘미술 비평가’라는 용어는 예술가에 대한 적대적 존재로 비춰지기 때문에, 리퍼드는 ‘저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예술에 대한 저자로서 리퍼드는 전통적인 형식주의 예술 비평이 아닌, 실천적이며 운동가적인 글쓰기와 큐레이팅을 만들어 낸다.

그녀가 행한 일련의 생각들과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사회적 연대는 우리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역사가 아니다. 큐레이터와 예술가의 협업은 새로운 예술사를 만들어 낸다. 주체적인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시장주의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나 자본에 대한 무의식적 경도에 휘둘리는 한국 현대미술 현실에 많은 참고와 교훈을 주는 건 물론이다.(퍼블릭아트 2018년 5월호)